

# 윤홍길의 만들어내는 소시민들의 입담

민충환

부천대학

## 1. 들어가면서

소설을 읽다보면 흔히 서사적인 줄거리에 빠져, 마치 자신이 소설 속의 주인공인 양 착각을 하고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통쾌한 기분에 젖어들 때가 있다. 그런데 독자들이 소설을 읽으며 일회일비하는 것은 소설 속에 설정된 기묘한 사건과 인물들의 갈등을 따라가며 등장인물에 동화되는 데에 원인이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인물과 사건이 마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문체의 힘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문체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작가가 구사하는 어휘라는 사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게 된다.

윤홍길의 소설을 읽다보면 마치 나 자신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나 된 것 같은 착각을 자주 일으키곤 한다. 왜냐하면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이 구사하는 어휘가 바로 그들의 직업과 학력 혹은 성격까지 드러내주는, 실감나는 어휘들이기 때문이다.

## 2. 윤흥길이란 소설가

전북 정읍 출생의 윤흥길은 1968년 단편 <회색 먼류관(冕旒冠)의 계절>으로 <한국일보> 신춘 문예에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왔다. 흔히 ‘절도 있는 문체로 현실의 왜곡, 부조리, 기괴함 등을 잘 드러내는’ 그는 인간의 근원적인 갈등과 민족적 의식의 저변에 위치한 삶의 풍속도를 예리하게 파헤치는 솜씨를 지닌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어린 시절 6·25 전쟁 와중에서의 체험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서술한 <장마>와 어른이 된 뒤에 관찰한 현실 사회의 모순을 풍자, 고발한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은 우리 소설사에서 수작으로 꼽힌다.

흔히 윤흥길의 작품 세계를 설명할 때 세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장마>, <황혼의 집>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전쟁을 체험한 어린이들의 성장과정을 다룬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홉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직선과 곡선> 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경험된 삶의 여러 가지 양상을 그린 작품들이며, 나머지 하나가 <무제>,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로 대표되는 분단의 현실과 아픔을 다룬 소설들이다.

1942년에 출생한 그가 전주사범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소설을 알게 되었고, 아예 소설 쓰기에 전념하고자 일부러 벽지에 있는 분교에 자원하여 내려갔을 정도로 매진한 작가이다. 어디 그 뿐인가. 작가가 된 후에 더욱 정진하고자 대학 국문과에 입학하여 공부를 했고, 졸업 후에는 스스로 고생을 자초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7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새롭게 조성된 ‘광주단지’(현재의 성남시를 당시에는 흔히 그렇게 불렀다)의 여학교에 교사로 부임하여 이른바 성남생활을 시작하였다. 바로 성남에서의 가난한 생활이 그의 작품에는 흠뻑 배어있다.

### 3. 소시민의 입담—윤홍길 소설의 어휘

이제 소개하는 어휘들은 윤홍길의 소설 속에서 가려 뽑은 것들이다. 그냥 선별한 것이 아니라, 필자가 윤홍길의 소설을 읽으며 어휘를 조사했고, 일일이 국어사전을 찾아 그 의미를 밝혀내던 중,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단어, 속담 등 고유어들을 작가 윤홍길에게 직접 물어 뜻을 밝힌 것들이다.<sup>1)</sup>

가랑이에다 솔밭을 달다 : 가랑이 사이의 불알이 솔밭처럼 소리를 내게끔 부리나케 달려가다. ‘솔밭’은 늦쇠로 만든 종 모양의 큰 방울.

\* “... 지금도 아주 늦지는 않을 것이니 어서어서 가랑이에다 솔밭을 달게나!”  
《에미》

가랑이에서 불이 일다 : 가랑이에서 불이 날 정도로 빨리 걷다.

\* 가랑이에서 불이 일 정도로 부지런히 걸었어도 집을 나선 지 근 한 시간이 나 되어서야 겨우 시내에 들어설 수 있었다. <양>

각놀다 : 제각각 따로 놀다.

\* 무었에 되알지게 얻어맞아 꼬리 부분이 거지반 동강날 정도로 상해서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각놀고 있었다. <장마>

개개일자로 : 여러 사람이 똑같은 모양으로.

\* 너무도 어안이 병병해서 최 사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개개일자로 말문이 막혀 있는 사이에 당돌하기 짝이 없는 그 감시원은 매우 결연한 동작으로 물론 쪽을 향했다. 《완장》

개뻥다권지 쇠뻥다권지도 모른다 : ㉠ ‘근본을 전혀 알 수 없다’는 말.

\* (주방장에 대한)... 소문이 분분했지만 어느 것이나 확인된 건 한 건도 없었다. 아직껏 이름도 성도 모르고 개뻥다권지 쇠뻥다권지도 몰랐다. <물매>

---

1) 지면 관계상 그 일부만 소개한다.

게으른 소 잡도리하듯 : 힘써 일하지 않은 소를 엄중하게 단속하듯이.

\* 외가 식구들이라 해서 특별히 나은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만이 홀로 청청해 가지고 첫새벽부터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게으른 소 잡도리하듯 했다. <장마>

경우지다 : '경위가 밝다'에서 온 말로, 절도 있게 똑바르다.

\* (케어튼은)… 진록의 두꺼운 나사천에서 연듯빛 얼멍베로 시원하게 바뀌고 창문들은 경우지게 한가운데 위치로 활짝 개방되었다. <몰매>

고닥새 : 금시에. 잠깐 사이에.

\* 그가 … 옛날 버릇 그대로 속삭이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나는 고닥새 감격해 버리고 말았다. <내일의 경이>

과남스럽다 : 과남한 느낌이 있다. '과남하다'는 '과람하다'의 변한 말.

'과람(過濫)하다'는 분수에 지나치다.

\* (김시철은)… 시골 국민학교 교사치고는 좀 과남스럽지 싶은 거만한 앓음새를 본의 아니게 취하게 되는 것이었다. <몰매>

그믐달이다 : 그믐밤처럼 사정에 어둡다.

\* “아직도 김 선생은 그믐달이시군.”

“네?”

“도망자래요.”

“뭘요?”

“쉬잇! 목소리가 너무 커요…” <몰매>

그 아비에 그 아들 : **속** 몹쓸 아비 밑에서 몹쓸 아들이 난다는 말.

\* “… 황대장한테 영겁결에 한번 낫을 거는 것이 결국 화근이 돼서 그 뒤부터 지금까지, 그 애비에 그 아들이라느니, 역시 배낫질이 자식놈이라서 별수가 없다느니, 하는 손가락질이 끊임없이 제 뒤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낫》

날이름 : 존칭을 붙이지 않고 함부로 부르는 이름.

\* 어엿한 장년의 마을 유지를 “춘계야아!” 하고 마구 날이름으로 불러졌고는 그만 겁에 질려 걸음아 날 살리라고 천방지축 논두렁을 타넘어 도망쳤다. <에미>

눈감땡감 : ‘얼렁땡땅 아무렇게나’라는 의미의 방언.

- \* “... 민군, 자네는 일찍이 제복 제도를 도입한 K직물이 창의력 없이 그저 눈감땡감으로 오늘날의 위치에 올라섰다고 생각하나?” <날개 또는 수갑>

느시렁 걸음 : 느장 걸음. 느릿느릿 꾸물거리며 걷는 걸음.

- \* ... 사내가, 이젠 이력이 나서 그다지 당황할 것도 서두를 것도 없다는 식의 표정을 하고는 링을 질러 느시렁 걸음으로 오더니 <내일의 경이>

닝닝하다 : ‘토할 듯이 거북한 느낌이 들다’의 뜻으로 쓰는 방언. 뉘엿 뉘엿하다.

- \* (커피는)… 검지도 붉지도 않은 애매한 빛깔에 들척지근한 냄새만 풍겨 그 걸 목구멍으로 넘기고 나면 단박에 속이 닳해 오는 것이었다. <몰매>

돌라까지다 : 빙 둘러가며 성질이나 태도가 모두 되바라지거나 약다.

- \* 언뜻 생각할 때 반지빨라 보이고 그러면서 어딘지 모르게 돌라까진 계집애다운 인상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피죄죄한 윤곽과는 동떨어지게 생기를 머금은 그 음성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엄동>

따그랭이를 떼다 : 상처의 딱지를 잡아떼듯 성가시게 덤비다. ‘따그랭이’는 ‘딱지’의 방언.

- \* 기왕 내친걸음이란 듯이 아가씨는 아주 따그랭이를 떼고 달라붙는 것이었다. <엄동>

땀독에 빠지다 : 물독에 빠진 듯 땀을 몹시 흘리다.

- \* 우리들 수강생 일동은 빛나는 그 젊음에도 불구하고 너나없는 물렁이었다. 모두들 땀독에 빠져 있었다. <제식훈련변천약사>

떼몽치다 : 떼짓다. 여럿이 모여 떼를 이루다.

- \* 이렇듯 우리는 사람들이 떼몽쳐 와 우리 집을 팡팡 두들겨 부쉬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이제나저제나 하는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다. <집>

물봉 : 성질이 무르고 어수룩하여 등치기 좋은 사람을 농으로 이르는 말.

\* 노예상의 간교한 눈에 신참의 그가 마침내 물봉으로 비쳤음이 분명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밀대 : 밀고자 또는 끄나풀 노릇을 하는 사람.

\* “나더러 이제부터 당신 밀대 노릇을 하라는 애깁니까?”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벋벋없게 : 아무 탈이 없도록.

\* 적어도 문명남한테만은 다소 함부로 구는 한이 있더라고 이전 벋벋없게 되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한 탓도 있긴 하지만 <내일의 경이>

‘날이름’, ‘돌라까지다’, ‘떼뭉치다’, ‘물봉’, ‘밀대’…… 이런 어휘들은 가난한 도시민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말들이다. 이런 어휘들을 윤희길은 어디에서 들은 것일까. 바로 성남에서의 가난한 삶 속에 터득한 것들이다. 물론 작가가 개인적으로 창조한 어휘들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성남에서의 삶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 4. 윤희길 소설의 매력

소설이 근본적으로는 삶과 세계 속에 있는 인간의 탐구라면 소설은 필연적으로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특수한 체험의 서술을 통해서 보편적인 어떤 것을 드러내보이는 문학 장르일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의 특수한 체험이란 작가 개인이 살아온 삶을 토대로 상상력의 힘을 빌려서 구성한 정신적인 체험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 속의 삶이란 한편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삶, 적어도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드는 삶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러한 일상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 어떤 것을 미리 체험하거나 다시 체험하는 삶이다. 이 두 가지 체험을 하나는 선체험이라 하고 다른 하나를 재체험이라고 한다면 모든 예술 작품의 감상이 그러한 것처럼 문학작품의 독서는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즐

거움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다.<sup>2)</sup>

다소 긴 인용이 되었으나, 이는 김치수가 윤홍길의 작품을 평하는 글의 서두에 제시한 것으로서, 윤홍길의 작품을 이해하는 하나의 길잡이가 된다. 바로 작가 윤홍길 ‘개인이 살아온 삶을 토대로 상상력을 통해 구성한 정신적인 체험’이 생생한 어휘들로 작품 속에 그대로 살아 있기에 그의 작품에서는 언제나 가난한 소시민들의 입담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더 따뜻한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윤홍길 소설의 매력이다.

---

2) 김치수, <윤홍길의 세 작품>, 『제3세대한국문학 4』(삼성출판사, 1983. 10), 423쪽.